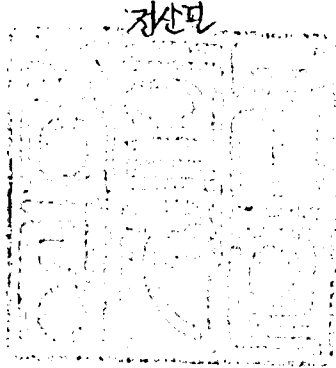


—<'97년도 설문조사를 통한>—

통일교육 반응 분석 결과



통 일 교 육 원

차 례

1. 조사개요.....	3
2. 조사현황.....	4
3. 조사결과.....	5
4. 종합평가.....	24

<붙 임>

1. 주요관심사항 / 27
2. 전문·일반과정 설문응답 현황 / 43
3. 특별과정 설문응답 현황 / 52

이 보고서는 원내 통일교육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교육효과 측정 및 발전방향 도출

- 조사대상 : 3일이상 과정의 교육생
 - 전문과정 :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담당자, 민방위소양강사, 대학교수, 중등교사
 - 일반과정 : 관리직공무원, 수습사무관, 교육행정직공무원,公安공무원, 정훈장교, 사회교육기관장, 대학생 등
 - 특별과정 : 통일대비행정요원(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5급 공무원), 통일대비교육요원(통일교육 담당교사)

- 조사기간 : '97. 1. 1 - 12.31.

- 조사방법 : 설문서를 통한 교육반응조사
 - * 교육과정에 따라 설문지를 “전문과정·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 조사

- 조사결과의 처리 : 교육생들의 반응을 분석·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발전을 도모

2. 조사현황

(’97.12.31.현재)

과 정	반	대 상	조사 횟수	교육인원	응답인원
전문과정	사회교육반	통일교육전문위원	2	277	207
		사회교육담당자	1	60	60
		민방위소양강사	1	173	141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3	229	211
		중등교사	8	684	651
	소 계			15	1,423
일반과정	공직자반	관리직공무원	4	288	275
		수습사무관	1	230	218
		교육행정직공무원	2	174	171
		보안경찰직공무원	1	42	41
		공안공무원	1	45	45
		정훈장교	1	43	40
		통일공무원	1	29	26
	사회기관· 단체반	사회교육기관기관장	1	66	60
	대학생반	북한·윤리학 전공생	1	39	37
	소 계			13	956
특별과정	통일대비 행정요원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5급 공무원	7	275	260
	통일대비 교육요원반	통일교육 담당교사	4	288	264
	소 계			11	563
합 계			39	2,942	2,707

3. 조사결과

[교육인원 : 2,942명]
[응답인원 : 2,707명]

가. 교육반응

1) 전반적인 교육소감

- | | | |
|-------------------|---------|-------|
| -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1,644명/ | 60.7% |
| - 다소 도움이 되었다 : | 985명/ | 36.4% |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78명/ | 2.9% |

2) 교육소감(자유기술)

< 긍정적 반응 >

- 북한실상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455) 습득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통일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된 유익한 교육이었음.
- 열과 성을 다하는 교수진과 관계직원 모든 분들의 친절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7)
- 전방시찰 및 탈북주민과의 대화시간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29) 분단현실을 인식하고 북한실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신 통일교육원 측에 감사 (18)
- 교육환경과 시설이 좋았음. (15)
-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필요한 교육 (13)
-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학생·교사 교육에 도움이 된 유익한 교육 (13)이었음.
- 교육내용, 방법 및 시설 등이 타 교육기관에 비하여 매우 좋았음.(8)

- 통합대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5)
-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교육 방법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교육이었음. (3)
- 통일문제 및 북한현실에 관심을 갖게 된 유익하고 보람있는 교육 (3)
- 교육후 현실적으로 통일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으며, 정부의 종합적·체계적인 통일정책의 일관된 수립과 국민계도가 필요함. (2)
- 통일원에서 더욱 노력하여 위상을 높여서 실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조국통일의 결실을 맺길 바랍. (2)
- 반공·안보교육 이상의 느낌이 있어 좋았으며,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교육을 받고 싶음. (1)
- 통일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 정부가 통일에 대비하여 각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음에 감명을 받음. (1)
- 10년전 학교 교육현장에서 초보적인 「통일논의」를 하다가 탄압받았던 교사인데 이제는 정부 주도하에 이런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니 격세지감을 느끼며,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대하여 희망을 가져 봄. (1)
- 통일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함께 정부가 많은 통일대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됨. (1)
- 정부와 학계의 통일노력 및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됨. (1)
-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긍심을 갖고 좋은 교육을 계속 펼쳐 나가길 바랍. (1)
- 통일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실제적 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과 남한주민 대상 통일대비 교육의 절실함 및 교사의 역할을 결심하게 됨. (1)

-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 학생·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1)
가 빨리 주어지길 바랍.

< 부정적 반응 >

- 교육원은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고충치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7)
- 구체적인 계획·준비 부족과 교육내용·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 (6)
고 형식적·비효율적으로 많은 시간과 경비 투자에 비해 교육성과 의문
- 통일관련 많은 지식·정보를 얻었으나, 전반적인 체계 및 현 (3)
·시집에서 통일대비요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 신념
이 생기지 않아 아쉬움.
- 4주간의 교육에 따른 물심 양면의 고통·피로에 상응하는 유인 (3)
(보상)이 없음.
- 시간 때우는 데만 급급한 교육, 좀 더 현실적이고 알찬 교육 (2)
으로 바뀌어야 함.
- 통일교육원은 타 연수기관에 비하여 진근대적이고 무계획적 (2)
으로 운영되는 기관
- 4일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했는지 의심스러우며, 명료하고 확실한(1)
강의로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고, 무리한 인력 낭비가 없었으면 함.
-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1)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 통일교육원은 내적인 교육보다는 외형적 교육실적을 중시하는 (1)
과시적 기관임을 알게 됨.
- 어느 정도의 북한실상을 알게 되니 오히려 두려움이 생김. (1)
- 교육기간중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다. (1)
통일에 대한 계획의 혁신이 필요
- 일반인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내면화시키는 방법이 묘연하여 통 (1)
일이 어렵겠다는 생각

- 모두가 소모적인 수고를 함. (1)
- 교육생의 마음을 걸잡시킬 수 있는 신뢰·애정을 지닌 담임교수 (1)
의 배려만 계획되면 맛있는 연수 운영 가능

나. 교육운영 개선사항

(1) 교육내용

- 교육기간과 강의시간을 연장하여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223)
내용의 교육 실시
- 원론적·추상적인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전문적 내용과 사례 (155)
중심의 실증자료를 제시하여 설득력 제고
- 강의내용의 전문성 제고 (154)
-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유사한 강의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몇가 (119)
지 중요테마로 과목수를 줄이고, 과목당 배정시간을 늘려서 2-3
주 정도의 과정으로 농축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 실시
- 과목간 내용중복을 지양하고, 교과에 따라 강의시간의 배분을 (88)
신축적으로 조정·운영
-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좀 더 다양하며 새롭고 깊이있는 내용이 (50)
필요
- 이론적·총론적 학술강의보다는 각론적·실무적이고 처방·대안 (41)
중심의 현실감있는 (통일대비)교육 실시
- 북한실상 및 통일문제 등을 좀 더 사실적·구체적으로 알 수 있 (39)
는 내용, 사례, 자료 소개
- 통일이론 등 교육내용이 강사들간의 견해차로 인하여 혼란(사전 (25)
조율), 주관적 의견이나 문제점 제시보다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통일정책(방향)을 확립하여 강의함이 필요

-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는 통일교육 내용 부족 (13)
- 철저한 강의준비로 주어진 시간에 맞게 강의내용을 축약·정리 (12)
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실시
- 교육내용이 방만하고 단편적이며 체계가 없어 수준이 낮고 빈약 (10)
- 제기된 문제와 주제에 대하여 통일원(교수진)측의 좀 더 선명하 (8)
고 책임있는 답변과 자신있고 명확한 견해·의견·전망이 제시
되도록 강의내용 정리
- 북한문제 외의 교양과목 편성 (7)
-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교육 실시 (7)
- 양보다는 질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길 바람 (7)
- 독일 사례에 너무 편향·중복됨(중국의 홍콩 경영과 같은 연구 (7)
및 강의 필요)
- 강의제목·주제와 내용의 연계성 부족 (5)
- 교재의 내용이 다소 빈약(일부 과목은 좀 더 수준을 향상시켜야)(5)
- 교과목을 분야별(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등)로 종합적이고 (4)
체계적으로 편성
- 장기교육과정이므로 교육기간중 해외견학(중국, 독일 등) 기회 (4)
제공 바람.
- 좀 더 세분화된 교육과정 신설(교육, 군사, 법무분야 등) (3)
- 「주체사상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강의내용 보완 (3)
- 경험·체험담 등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것 위주로 과목 (3)
편성

- 교재편성 내용이 구체적인 분석, 이해의 틀없이 나열되어 논리적 (3)
체계가 없음.
- 향후의 통일대비계획 등 좀 더 자세한 설명 필요 (3)
- 교재를 활용이 간편하도록 작게 제작, 보급 (2)
- 비진공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 (2)
- 통일대비용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교육내용·과목의 보강이 필요 (2)
- 독일·중국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육의 중점은 남북문제에 (2)
집중되어야 함.
- 북한사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치·경제·법 일반(2)
도의 과목 탈피
- 북한실상, 북한의 통일진신진술, 한총련의 실체에 대한 교육 강화(2)
- 「통일문답」 교재 보완(환자 확대, 삽화 삽입) (1)
- 단순 비교가 아닌 역사적 접근이 필요 (1)
- 교재 뒷편에 색인목록 삽입 (1)
- 통일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일비용을 (1)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교육자료의 책자 형식 단일화 (1)
- 남북한간의 각 교과별·내용별 비교 필요 (1)
-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필요 (1)
- 이론·지식의 나열보다는 다양한 정보나 북한실상을 이해하는 (1)
교육 실시

- 너무 낙관적 입장만 제시 (1)
- 대학교육의 현안과제인 학생운동과 이데올로기 교육 필요 (1)
- 통일교육의 존재 인식(Scin)보다는 당위성(Sollen)에 역점을 두어야 함. (1)
-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1)
-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이론적 측면에 치우침. (1)
- 북한 지배계급과 향후 그들의 향방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 (1)
- 민간 교수들의 다양한 목소리 수렴, 제시 (1)
- 통일교육원 교수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강의내용 및 방법상의 (1)
한계성이 있는 듯 하니, 보다 개방적·적극적 자세와 내용이
요망됨.
- 교육목적, 취지와 무관한 교과 구성 (1)
- 주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현실적·실제적인 내용으로 범위 (1)
축소
- 강의내용을 요약식으로 하되, 실례를 많이 들어 주길 바람. (1)
- 보다 전문적인 내용, 풍부한 자료,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된 (1)
결과를 내용으로 교육
- 경제계, 산업계, 사회계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 (1)
부터의 생생한 교육도 필요
- 실제적인 통일실천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부재 (1)
- 통일의 관점을 흡수에만 맞추지 말고 또 다른 측면의 관점에서도 (1)
설명되어야 비교 가능

- 분단원인·상황·전망·해결책 등 본질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1)
단순 흡수통일 프로그램 속에 억지로 맞추어 넣으려는 듯한 인상
- 철학적 이론 고찰없이 과거 반공교육식의 내용 (1)
- 북한 붕괴시, 개혁·개방시 등 상황별로 뚜렷한 교육목표의 제시(1)
- 지식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북한과 통일문제를 보는 관점, 시각 (1)
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 개편
- 체제전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을 위해서는 통일대비(과정)보다 (1)
는 통일후 실시할 구체적 교육내용, 모델 제시에 시간·과목을
할애하여 교육
- 주(主)과목은 10시간 이상씩 집중 교육하고 나머지는 특강형식 (1)
으로 1시간씩 교육
- 통일후 이질화에 대한 통합교육적 차원의 교육 필요 (1)
- 명확한 교육목표 및 방향성의 제시 필요 (1)
- 일부 교과목은 교재내용이 너무 압축되어 있어 보강이 필요 (1)
- 강의시간 내에 소화하기에는 내용이 많아 이해가 어려움 (1)
- 교육시작 전 강좌의 구성원리 및 정당화 작업 필요 (1)
- 일선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인데 입교식 때 원장 인사도 (1)
없는 무성의한 교육
- 연속강의로 인한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오락시간 편성 (1)
- 교과별 북한의 교육내용 제시 필요 (1)
- 북한 교과서를 분석한 후 교과별 통일교육 방법 토론 (1)
- 정치·경제분야 강의보다 사회·인문분야 강의 확대 (1)

- 너무 많은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복 설명 부분이 많음. (1)
- 기초개념에 관하여 일정시간을 교육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1)
- 독일에서 연구·공부한 강사 위주의 경향이 있는 바 국내 전문가, 통일원·안기부 등의 실무 담당자 강의가 보충되었으면 함. (1)
- 지루한 주입식 이론 강의에 머물렀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더 입체적인 현장교육(독일 등 해외연수, 통일관련 연구기관 방문)이 필요 (1)
- 각 과목간 유기적 관련성을 갖도록 해야 함. (1)
- 북한실상 및 자료의 체계화 필요 (1)
- 통일대비 유사기관(정부, 공기업)간 횡적 대비(내부문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각 부처별 대비계획의 횡적 유대 준비가 필요 (1)

(2) 교육방법·운영

- 일방적 강의 위주의 교육지양, 참여식·토론식 교육(현장체험, 질의·응답, 주제발표·토론, 사례연구 발표 등) 확대 강화 (319)
- 영화, VTR 등 다양한 영상매체 및 시청각 교육자료의 활용 확대(224)
- 교육과정(일정·시간)이 너무 팍 짜여져 있으므로 좀 더 여유있게 조정(주 1회 정도, 시사·건강강좌·레크레이션시간 배정 등 필요) (64)
- 과목간 일률적 시간 배정으로 중요과목 강의시간 부족 (43)
- 전방시찰 등 현장방문 중심의 교육 지향 (37)
- 강의시간 말미에 질문·답변시간 배정 (33)
- 교육대상자별로 특성에 맞게 신축성있는 프로그램을 설정, 교육내용 차별화 (31)

- 대담·자유토론시간의 확대 (31)
- 일부 강사진의 전문성·교수방법·성의 부족과 불성실 (30)
- 학급인원 축소 조정 (29)
- 「탈북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좀 더 최근에 탈북한 다양한 계층의 탈북주민을 복수 초청 (27)
- 단계별 교육 실시 (26)
 - 행정요원① (2)
 - 1단계 : 총론
 - 2단계 : 구체적 실무 위주의 부처별 준비사항
 - 3단계 : 문제점, 개선방안 토의, 귀순자와의 대화, 현장방문 등
 - 행정요원② (2)
 - 1~2주 : 분야별 북한실정 이해
 - 3~4주 : 통합방안
 - 교육요원 (22)
 -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의 3단계로 구분(과정별 60시간)(19)
 - 기초과정, 심화과정(180시간) (2)
 - 기초반(60시간), 전문1반(120시간), 전문2반(180시간) (1)
- 강의 요약자료 작성, 배부 (25)
- 교육기간 단축 (24)
-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통일대비요원이 임무와 역할 등 교육 목적을 소상히 알리고 경력, 연령, 성별 등 자격요건을 정하여 통일교육 의지가 충만하고 바른 통일관을 갖고 있는 희망자만 엄선하여야 교육효과도 있고, 통일대비요원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에 도달할 수 있음. (19)
- 종합토의시 사전에 서면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 (17)
- 북한관련 자료의 빈곤 및 정보이용의 폐쇄(정보의 공개 및 공유 필요)(15)
- 휴식시간 부족 (13)

- 교육기간 연장(1주) (13)
- 자료 탐구, 개인과제 부여 등 자율학습시간을 배정 (11)
- 합숙교육 실시 (11)
- 통일정책 관계자 등 체험있는 인사의 참여 폭 확대 (10)
- 강의시간 조정(80분→50분) (8)
- 강사 초빙시 지명도, 능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 (8)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강의기법 개발 (8)
- 종합토론시간에 교수 불참, 무단 변경 (6)
- 교육운영 준비가 다소 부족 (5)
- 지방교육생들이 입교 전일부터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4)
- 교육이수시간을 60시간 단위로 편성 (4)
- 진행이 너무 딱딱하여 지루하고 피곤하므로 오락, 영화 등을 섞어 좀 더 부드럽게 시간을 편성, 진행 (4)
- 교육시간 엄수(입교식, 전방시찰 등) (4)
- 합숙·비합숙 여부를 본인 의사에 따라 사전 결정토록 개선 (4)
- 자치간부는 입교 2~3일 후 직선하는 것이 바람직 (4)
- 2주정도의 기본교육후 분임을 편성하되, 분임토의시간을 단축하고, 과제연구 발표시간을 확대 (4)
- 개별 연구과제를 통하여 분임 연구과제를 선정 (4)
- 전방견학시간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람(GP, 고성통일전망대 등). (4)

- 탈북주민과의 대화시간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 (4)
으며, 시간을 좀 더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 분임연구 주제를 입교전에 통보 (3)
- 교육생간 친교시간 마련 (3)
- 내용과 질이 낮은 시청각 자료의 재편집 제작 (3)
- 독일 유학 출신으로 편중된 강사진을 미·일·중국 등으로 (3)
다변화
- 과목별 종합평가표를 참고하여 평가점수가 낮은 과목 및 강사 (3)
교체
- 종합토의, 분임토의 및 세미나시간 축소 바람. (3)
- 강의시간 연장 (3)
- 친교활동시간 확대 (3)
- 교육초기에는 과제선택 및 문제제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 (3)
기간 교육 후 집중적인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방법에 있어 강의식과 토의식을 겸용, 대화·토론 기회의 (3)
확대
- 비합숙교육 실시 (2)
- 뒷 좌석은 강의내용이 잘 안 들리므로 마이크 사용하여 강의 (2)
- 학기중 교육 실시 (2)
- 강의실 좌석 지정 (2)
- 합숙교육의 경우 방과 후의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2)
교과편성 요망
- 「탈북자와의 대화」 시간을 90:1명→ 15:1명 정도로 개선하여 (2)
자유로운 집단토의 방법 모색

- 「미해결 재산권 처리방안」 세미나 토론자에 대한 별도의 강의 (2)
시간 배정 운영
- 교육 운영시간 조정: 월요일 13시 시작(금요일 12시 종료) (2)
- 분임을 소분임(4~5명 정도) 형태로 운영, 개개인의 적극 참여 (2)
유도
- 유인물을 읽는 형태의 강의를 전반적 흐름의 이해와 설명으로 (2)
개선
- 분임토의에서 발표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음. (2)
- 교육생 연령 하향 조정 (2)
- 과목이 과다하고 과목당 할당시간이 너무 적어 항상 부족한 시간(2)
에 교육을 마치려니 마치 수박 겉 핥기식의 교육이 되므로 과목
수를 축소하고 과목당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좋겠음.
- 방학기간중 교육 실시(수업결손 방지) (1)
- 입교전에 교육 프로그램 제시 (1)
- 교육내용 사전 배포 (1)
- 교과목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기능별로 분류 (1)
- 자치간부의 윤번제 선임, 가산점 제도 폐지 (1)
- 설문을 좀 더 세분화, 의식·자세를 묻는 문항 신설 (1)
- 1주일에 1일은 오전 수업 실시 (1)
- 「주체사상의 비판과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이해 과목에 해당 (1)
되므로 강의시간을 앞당겨 조정
- 강사(박덕규)가 반말 사용하는 것 시정 (1)
- 간담회 1~2회 정도 필요 (1)

- 교육 종료시간 단축 (1)
- 분임토의 자료 배부 (1)
- 분임연구 발표방법의 다양화 (1)
- 분임토의에 대한 과제 제시 등의 구체적 방법이 주어져야 바람직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짐. (1)
- 분임 연구주제의 범위 축소 (1)
- 남의 논문 베끼기식의 과거 답습형 이론에 급급한 분임토의 (1)
- 분임보고서 작성에 있어 추상적 논지의 서술과 이진 이론의 요약 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자료·논문의 활용방안 필요 (1)
- 「탈북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분임별로 사전에 질문내용 도출 (1)
- 강사들의 끊임없는 자기연찬으로 체계적 강의 (1)
- 교육시간을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때우고, 중요 요집과는 관계없는 말을 많이 함. (1)
- 연수효과는 피연수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교육심리의 기본을 알아야 함. (1)
- 교수들의 학문적 편협성, 교수업이라는 기본개념 무지 (1)
- 강사교체
 - 북한직장생활(백영옥) (1)
 - 방북 경험자와의 대화(윤시중) (1)
- 폐쇄회로에 의한 강의 감독이 교수가 강의를 더 못하게 하는 요인 (1)
- 강사 자신만 알고 있고 피교육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교육방법 개선 (1)
- 등록일의 등록시간을 정확히 알려서 경제적·시간적 낭비 방지 (1)

- o 합숙기간 특별 프로그램 설치 필요 (1)
- o 도표나 지도 등의 많은 활용 기대 (1)
- o 강의순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람. (1)
- o 장기간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짧게 하여 자주 (1)
교육 실시
- o 일부 교육생들의 극히 불성실한 수업태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1)
통제되어야 함.
- o 교육생들이 강의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시험실시 등) (1)
필요
- o 개인연구시간 확대 (1)
- o 강의시간이 획일적으로 2시간 이내로 짜여져 있어 깊이있는 (1)
내용은 배우기가 힘드므로 과목에 따라 4-8시간에 걸친 강의
개설
- o 전체분임의 발표보다는 개인 보고서를 작성, 그 중 1인을 각 (1)
분임에서 자체 선정, 발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 o 논문 제출 형식이 되다 보니 1인의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폐단이 (1)
있으므로 쉬운 것부터 주제를 주어 워크샵으로 시행
- o 통일대비요원 교육이 연수성적 위주가 아닌 통일준비과정이 되기(1)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
- o 강사들이 일정한 선을 정해 놓고 강의를 하여 앞뒤 문맥이 이어 (1)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지나친 정보차단으로 학습의욕 반감
- o 종합토의는 토의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교수가 (1)
진행(탁상공론 및 제자리를 맴도는 듯)
- o 마지막 시간(통일대비요원에게 바란다)은 통일(교육)원 대표가 (1)
무엇인가 당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

(3) 평 가

- 주관식 폐지, 전과목 객관식으로 문항수 늘려 평가(공정·변별력)(6)
- 객관식 평가 OMR카드 사용 (6)
- 시험방식을 주관식 Open test 또는 과제물(보고서) 부과로 변경 (5)
- 평가시기를 마지막 주 월요일 1~2교시로 조정 (4)
- 주관식 평가 배정시간 부족 (3)
- 평가시기를 마지막 수요일 1~2교시로 조정 (2)
- 평가문제 출제시 단순 암기식의 지엽적 문제보다는 이해력 중심 (2)
의 변별력있는 효율적 문제를 출제
- 학습평가보다는 개별 연구과제를 지도교수 앞에서 발표, 질의· (2)
응답하는 것이 효과적
- 가산점, 주관식 및 분임연구 점수차 공개 (2)
- 평가 폐지(명색이 교사, 평가로 구속치 말아야) (2)
- 평가과목만 공부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평가를 보고서(1~2일 (2)
에 A4 2~3매)로 대체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강,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 평가과목을 미리 정하지 말아야 함. (1)
- 근태평가는 감시체제와도 같아 자율학습 분위기 저해 (1)
- 객관식 20문항 미흡 (1)
- 객관식 평가문제의 타당성·난이도·공정성 모호 (1)
- 분임토의 연구물 평가기준 모호 (1)
- 평가에 억매이지 않는 열린 교육 필요 (1)
- 시험 부담을 줄여야 함. (1)

(4) 이용시설, 기타

- 다양한 식단과 식사의 질 개선 (161)
- 숙소 냉방시설(에어콘, 선풍기) 설치 (51)
- 생활관 기본시설 확충·개선 (46)
(냉장고, 샤워시설, 음료 자판기, 층별 공중전화, 책상, 신문·잡지 등)
- 통근버스 증편 운행 (35)
- 체육, 여가시설 마련(테니스장, 철봉, 배드민턴 등) (22)
- 여비지급 현실화 (20)
- 세탁시설(세탁기, 탈수기) 확보 (9)
- 숙소의 난방이 다소 미흡 (8)
- 강의실 적정 온도 유지(냉난방 과잉) (7)
- 일과 후(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 필요 (5)
- 연수생에 대한 배려 부족 (4)
- 전방시찰 노후차량 교체 (3)
- 점심시간을 과정별로 시차 운영 (2)
- 생활관을 1인 1실로 운영 (2)
- 식당 냉방 개선 (2)
- 세면장,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2)
- 자료실에 부족한 교과서 비치, 복사 대출 (2)
- 전방견학시 간식 제공 (2)

- 강의실 마이크 음질 불량 (2)
- 자료실 이용시간 부족 (2)
- 자료실 대출체계 정비 (1)
- 점심시간에 자료열람이 가능하도록 안내직원 배치 (1)
- 자료실에 최근 북한자료를 확보·비치 (1)
- 자료실의 연구문헌을 대학 도서관 수준으로 확충 (1)
- 북한자료실내에 앉아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간 확보 (1)
- 매점이 너무 멀음 (1)
- 커피 제공 (1)
- 전방견학시 점심 부실 (1)
- 식사시간 조정(아침: 더 일찍, 저녁: 더 늦게) (1)
- 생활관 방역 (1)
- 경비실 불친절 (1)
- 여 교육생 (특히)임산부가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1)
- 학교별 2-3명 이상의 통일교육 전담교사 양성제도 마련 (1)
- 교감·교장 대상 1-2일 교육 필요 (1)

다. 주요 건의사항

- 계획적·체계적인 연계 보수교육, 자료제공, 관심고조와 이해, 동향 (192) 파악 등 사후관리의 제도적 장치 필요
- 교육대상 및 기회를 확대하여 통일교육의 지속적 확산 (58)

- 중·고등학교의 학생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자료, 정보자료 (19)
의 제작, 보급
- 대국민 통일교육·홍보 확대, 강화 (11)
- 통일대비요원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구체화하고, 지속적 기능강화,(10)
자격인정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적극적 활용방안의 모색
- 통일교육 전문위원의 위상 제고 (2)
- 교육대상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 및 통일과업 수행의 사명감(2)
고취
-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2)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365일중 20분 정도의 분량)
- 통일대비교육 수료생중 희망자와 소양을 갖춘 교사에게 통일대비 (2)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 기간도 연장하여(6개월)
수료생을 통일진 대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 평가가 없는 교육으므로 일정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독일·중국 등의(2)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 개발이 필요
- 통일교육원에서 일선 학교현장에 학기당 1회 정도 출장 강의를 하여(1)
학생들 질문도 받고 잘못된 정보나 의식에 대해 교정도 해 주는 기회 마련
- 교육이수자 중 각 기별로 3~5명을 선발, 해외시찰 실시 (1)
- 고 3학생 학년말 통일교육 실시 (1)
-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의 시설물 고급화 필요 (1)
- 중국 조선족이 남한에 대하여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 (1)
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조선족을 통해 북한주민이 남한체제에 대하
여 긍정적 판단을 하도록 사고의 변화 유도
- 교육대상자 선발에서부터 교육 이수 후의 대책까지 체계적이고 지속(1)
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통일의 기수로서의 신념이 생길 수 있게
하여야 함.

- 자발적인 통일대비교육요원 정예반을 편성, 체계적으로 교육·훈련 (1) 시켜 각 시·도에서 통일대비 교육을 담당하는 고급인력(전문요원)의 훈련·육성이 필요
- 피교육자간 친교 및 통일 소명감 고취를 위하여 “통일을 생각하는 (1) 밤” 행사의 기획 추진
- 교육대상자 선발시 통일관련 업무종사자 또는 관심도가 높은 사람을(1) 선발

4. 종합평가

- 앞의 전반적인 교육소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통일교육이 통일문제와 통일대비업무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는 물음에 교육생의 절대 다수(97.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육생을 반별로 보면 통일대비행정요원반이 88.1%로 가장 높고, 공직자(보안경찰직공무원)반이 26.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과정상 교과목 구성체계에 대하여, 전문과정 및 일반과정에서는 「적절하다」와 「잘 모르겠다」는 견해가 각각 73.5%, 10.9%이고 「부적절하다」가 15.6%인 반면, 특별과정(통일대비행정요원반, 통일대비교육요원반)에서는 「잘 짜여져 있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39.1%, 4.0%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56.9%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과정 교육생들의 개선의견을 보면, 과목신설(붙임3 참조)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목의 통폐합으로 과목수를 줄이고 과목당 배정시간을 늘려서 2~3주 정도의 과정으로 농축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 실시, 교육내용에 대한 강사간 견해차 해소(사전조율), 특정지역(독일, 중국 등)의 시찰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강의내용의 적절성, 강의기법의 적절성, 교수들의 강의능력에 대하여는 10점 만점에 각각 8.0, 7.5, 8.0점으로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통일문제의 이해와 관련한 과목 선호도(1인 2과목 선정)는 「통일정책」, 「탈북 주민과의 대화」, 「종합토의」, 「통일환경」, 「북한경제 현황」, 「분단국 통일사례와 우리의 통일」 등에 대한 과목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시청각」, 「분임토의」,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등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과목만을 선정하여, 1·2위 과목만을 집계한 점을 고려하면 선호 숫자가 0인 과목이 없음을 볼 때 전과목이 통일문제 이해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특별과정(통일대비요원반)에서 실시한 분임토의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참여태도가 「(매우)적극적」 이다가 88.2%, 「소극적」 이다가 11.8%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운영체제는 「(매우)효율적」 이다가 85.9%, 「비효율적」 이다가 14.1% 를 보이고 있으며, 지도교수의 활동은 「(매우)적절」 이 86.6%, 「무관심」 이 13.4%로서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 분임토의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과제연구시의 애로사항으로서 “과제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한·부족”, “시간의 부족”, “PC성능의 낙후 및 수량 부족” 등이 제기된 바, 최신 version의 PC 확보, 분임연구주제를 입교전에 미리 알려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교육운영 개선사항으로는
 -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과목간 내용 중복의 지양”,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을 연장하여 좀 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 실시”,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의 제시”, “각론적·실무적인 처방·대안 중심의 현장감있는 교육 실시” 등이 있으며,
 - 교육방법·운영과 관련하여 “일방적 강의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참여·토론식 교육(현장 체험, 질의응답, 주제발표·토론, 사례연구 발표 등)의 확대·강화”, “영상매체 및 시청각 교육자료의 활용 확대”, “학급인원 축소 조정”, “교수방법의 다양화 및 흥미 유발 강의기법의 개발” 등이 있고,
 - 통일대비교육요원반 학습평가에 대해서는 “전과목 객관식 평가”, 또는 “주관식 평가 대신 과제(보고서) 부과” 등의 의견을 보였으며,

- 이용시설면에서는 “식사의 질 개선”, “숙소 냉방시설 설치”, “체육·여가 시설 마련”, “통근버스의 증편 운행” 등이 있음.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교육대상 및 기회의 확대로 통일교육의 지속적 확산”, “계획적·체계적인 연계 보수교육, 자료제공, 관심고조와 이해, 동향 파악 등 사후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대비교육요원의 경우 “통일대비요원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기능 강화, 자격 인정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적극적 활용방안의 모색”을 건의하고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와 교육생들의 교육소감을 종합해 볼 때 금년도 통일교육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며, 특별과정의 교과목 구성 체계는 발전적 검토가 요망되고, 강의내용·방법에 있어서는 일방적 강의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참여식·토론식 교육을 확대 강화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통일교육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선 노력을 지속시키되 종합토의시 질의내용과 교육운영 개선사항, 주요 건의사항의 소수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붙임 1. 주요관심사항(종합토의시 질의내용)
2. 전문·일반과정 설문응답 현황
3. 특별과정 설문응답 현황

(붙임 1)

주요 관심 사항

- 종합토의시 질의내용 -

1. 통일정책

- 현재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아주 희박하며, 이는 문화적 동질성 회복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려고 한 정부의 통일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견해 및 교육적 해결 대안은?
-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내용은?
- 통일 후에 발생할 문제(토지, 기득권, 군의 인사개편 등)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통일 후 북한의 핵심 당원들에 대한 처리 방안은?
- 통일 후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주변여건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거시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남과 북이 사용하는 “자유” 및 “민주”의 개념 차이는 무엇이며, 통일의 내적·외적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 통일의 당위성, 정부시책의 일관성, 대북창구의 일원화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문제가 있다. 통일정책의 교육·홍보 현황과 향후 대책은?
- 우리의 통일이 늦어지는 것은 민족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남북교류협력의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시급한 것 아닌가?
- 통일의 지름길에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걸림돌이 아닌가?
- 통일정책 추진 관련 통일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위상 관계는?
- 통일 이후 사상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는가?

- 전문위원들을 교육시킨 이후의 활용계획은 무엇인가?
- 최근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탈북자들의 주거, 생활안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투자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는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합작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 남·북·미 관계의 전망과 만일 미국이 우리보다 북한과 더 가까워진다면 통일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할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자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한총련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있는지? 아니면 북한을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데 있는지?
- 지난해 대북 쌀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 정부차원의 대북 쌀지원이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가?
-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의 자발적 모금주체가 될 수 있나?
-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규모와 문제점 및 긍정적 측면은?
-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각국의 지원 이유는 무엇이며, 공동지원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원은 민간차원인가? 정부차원인가?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에서 미국과 남한은 상이한 전략 구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 유지전략 차원에서 시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식량지원 전략은 순수한 동포애적 차원인가? 미국의 연착륙정책에 따르는 것인가?

- 대북 식량지원 결정 주체는 우리정부인지? 아니면 외국인지? 또한 정치로서의 지원인지? 경제로서의 지원인지?
- 정부의 대북 쌀 지원정책이 변화와 수정을 거듭해 온 배경은 무엇인가?
- 북한의 태도변화 이전에 조건없이 대북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가?
- 축산업 분야의 남북협력관계를 맺고자 할 때의 접촉 경로는?
- 북한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두운데, 북한 정보의 부족 원인은 무엇인가?
- 오늘날 북한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북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의 정보 수집능력과 정보수집원·경로는 무엇이며 우리 정보의 북한에 대한 노출은 어느 정도인가?
-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 첩보가 상당히 상세하다고 하는데 땅굴의 발견 정도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이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
- 김정일 정권의 붕괴시 통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 통일교육법 제정시 통일대비요원과 통일교육전문위원의 역할은?
(통일 이후 북한에서 활동할 전문요원 선정시 공무원보다 통일교육전문위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시행령에 명시)
-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대북지원보다는 우리의 내부단속이 중요하지 않은가?
- 우리의 정책내용이 북한당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데, 통일정책도 그렇게 되어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 통일대비는 북한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남한체제의 문제점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은?

- 통일시 효과적인 농업분야의 통합방안은?
- 통일 이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질감 해소)을 위한 방안은?
- 통일 이후 남북한 가치통합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 토지소유권을 포함하여 사유재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가?
- 통일대비 「철도분야」에 대한 연구정도 및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북한이 붕괴된다는 것은 미국의 확신인가?
- 통일의 시기 및 갑자기 통일이 될 때의 대비책과 통일관리 능력은 있는가?
- 북한의 변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 분단관리비용, 통일비용 및 통일 이후의 비용과 비용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의 국력으로 비용 감당이 가능한가?
- 남북한 통일비용과 동서독 통일비용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 황장엽의 위장 귀순 가능성은?
- 황장엽을 반성·사과없이 받아 들이는 이유는?
- 황장엽의 망명동기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파급효과 및 전개방향은?
- 황장엽이 「조선문제」 논문에서 제기한 논리들에는 어떤 모순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력을 회복할 경우 군사력을 강화하여 통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면서 붕괴유도론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 예멘의 통일과정은 어떠했는가?
- 남북간의 체제와 이념의 대결구도에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주적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추진 방향은 어떠한가?
-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 모형과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 미래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과 북 어느 쪽이 잠재적 능력의 측면에서 승산이 있다고 전망하는가?
- 현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보는가? 또는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 남북한 모두 통일논의를 정권 안보 차원에서 사용해 온 것을 볼 때 남북한 모두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통일환경 조성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대외(외교)전략은?
- 통일의 장애요인으로서 국제환경적 요인과 남한측 요인, 북한측 요인은?
- 대학입시 및 대학교육에서 통일문제가 제외된 교육여건 속에서 젊은 층의 안보관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
- 북·미 제네바 핵합의 이행과정에서 북·미관계는 어느 정도 긴밀해졌는가?
-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인상을 풍기는 4국간의 역학관계는 무엇인가?
- 4자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외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은 북한측의 요구 또는 중국측의 견제 때문이었는가? 그리고 일본이 제외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북 경제지원(식량지원)의 배경 및 목적·방법과 장단점은?
- 대북지원 이전에 국내의 어려운 집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 남한기업의 북한 진출시 정부의 보장조치는 무엇이고, 현재까지의 진출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북한체제의 안정에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헌법에서 북한을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헌법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의 개발실태와 전망은?
- 대북관련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가 국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대책은?
- 남북통일 이전에 남남통일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좌경운동권(한총련, 주사파 대학생 등)의 주장 및 활동내용과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은?
- '70년대에 반공 교과서가 없어졌고, 한총련 같은 반체제 세력을 두고도 이에 대항시킬 이론서가 없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통일안보 교육기관의 난립(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데, 일관성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대책은 없는가?
- 정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대학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없는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운동권 논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 학생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을 모두 나쁜 학생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지?
- 정부의 통일정책(대북정책)에 일관성은 있는지? 대북정책의 혼선은 비전과 전략이 확고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람직한 통일전략과 대북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며,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대국민 신뢰 회복방안은?
- 대북정책 추진시 북한에 양보만 해야 하는 이유는?
- 선진 정치·경제·사회에 토대를 둔 통일독일과 비교하여 볼 때, 통일한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예상되는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성숙된 상태에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독일통일에 있어서 좌절을 느낀 동독출신 여성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북한 여성들은 어떠한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남북기본합의서의 사문화 이유 및 대책과 4자회담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
-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관련, 대북 Soft Landing정책의 변경 가능성은 있는가?
- 동서독 통일 당시 경제규모와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통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 북한 붕괴가 중국의 영향력에 좌우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은?
-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 북·미, 북·일 정상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은?
- 미국은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가?
- 국민들 입각에는 통일 낙관론이 있는데, 과연 쉽게 통일이 될 것인가?
-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책은?
- 경제난 관련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및 붕괴 양상(시나리오)과 우리의 대비책은?
- 통일이 저절로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앞당길 것인가?
- 미·일·중·러의 한반도 통일관과 입장은?
- 한·미간의 대북정책의 본질과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 민족이 체제나 동맹국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은 통일교육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 북한의 대미 실리추구 전략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가?
- 4자회담은 통일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4자회담에 의존하기 보다 남북주도의 접근을 모색하여야 하지 않는가?
- 정치적 접근의 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경제중심)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접근방식은 어떻게 변하여야 하는가?
- 이제까지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환상만 키운 것이 아닌가?
- 통일교육의 비현실성을 극복하여야 하지 않는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상대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우리의 시각(예: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중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가?]
- 통일문제는 정부 주도하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창구의 다양화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학교 통일교육의 강화방안 및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대책은?
- 통일교육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한 화합방안은 어떻게 제시하여야 되는가?
- 통일과정에서의 교사들의 재교육 구상은?
- 통일은 꼭 하여야 되는가(당위성)?
- 우리 정부가 남북간의 학술·종교교류를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남북교류를 확대,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통일의 가능성 및 그 실현의 예상시기는?
- 통일(대비) 구상(시나리오)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
- 우리 정부는 흡수통일을 바라는가? 아니면 점진적 합의통일을 바라는가?
- 이장희 교수 관련 통일원을 해체하고 장관은 물러나라는 오제도씨의 주장 내용과 진상은?
- 월간조선 7월호의 “수도”, “국기” 등에 대한 견해는?

- 통일 후의 국체와 정체는?
- 북한의 화학무기 카드화에 대한 대비책은?
-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으로의 이진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과 저지방안은?
- 북한의 기상정보 자료의 입수방법 및 북한과 기상자료 또는 학술교류 방법은?
- 북한에 남한실상을 알리는데는 조선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변 교포의 활용 가능성 및 추진상황은?
- 군축이 북한의 직화전략의 일환이라고 불신한다면 북한도 우리를 불신할 것인 바, 우리의 군축의지 및 군축 전망은?
- 북한의 경제 회생, 개방 가능성과 남북한 평화통일 가능성은?
-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이유는?
- 북한측은 남북대화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
- 통일헌법 초안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통일을 바라지 않는 계층은 누구이며 몇 %나 되는지?
-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대응책은?
- 주한 미군철수 가능성은?
- 통일 이후의 토지정책은?
- 경수로 건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 미국의 WIN-WIN전략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 4자회담에서 우리의 정책방향은?
-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문제 및 분배방법은?
- 북한에 민간 기업인을 많이 보내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2. 북한문제 기타

-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현 실태, 붉은기철학과 주체사상과의 관계, 북미관계의 전망은?
-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원문 내용을 직접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 북한 주체사상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변동과정은?
- 주체사상의 구체적 내용과 대학생들이 주체사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득 논리는?
-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문제는?
- 백두산 영유권에 대한 북한과 중국간의 교섭결과 및 현황은?
- 북한 기아참상의 과장 보도 여부 및 식량난의 참 실상 및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 북한의 현 위기를 불안정 속의 안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수습 불능상태로 보아야 하는가?
- 북한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체적 노력에 있어서 중국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예컨대 독립채산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국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실정이 매우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현재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처하게 된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또한 남북한 교역의 규모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 북한에서의 장례의식, 결혼의식은 어떠하며, 결혼 유형은 어떠한가? 그리고 북한에 지하종교가 존재하는가?
- 북한의 대남 땅굴에 대한 진상과 대책은?
- 북한의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 적십자사에서 대북지원을 할 때 물품에 우리의 상표가 붙는지?
- 최근 보도된 북한의 대량 아사자 발생사건은 사실인가? 이런 보도내용을 내 보낸 북한의 기본 의도는 무엇인가?
- 김일성 사망의 원인으로서는 독살설은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 정부 고위층에 침자가 있다는 황장엽 비서의 발언에 대한 확인결과 및 대비책은 무엇인가?
- 고정간첩 5만명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대처방법은?
- 황장엽 전비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어느 수준인가?
- 7월 전쟁설의 배경·실체는 무엇이며,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은?
-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김정일의 통치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김정일이 공식석상에서 연설을 안하는 이유는?
- 판문점내 농토에 경작권만 주고 소유권은 주지 않았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북한의 김일성대학 안에 종교학과가 설치되어 있는가? 만약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허용되고 있다는 의미인가?
-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종교가 있는가? 자유가 없다면 지하에서의 신앙생활은 있는가?
- 북한의 종교실태, 특히 기독교의 실상은 어떠하며, 남한 종교인들의 북한 진출 방법은?
- 김일성 동상을 비롯한 건조물 및 조각을 통일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북한에서 민중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 북한의 체제붕괴의 가능성과 예상시기, 조건 및 우리의 대응방안은?
- 공산주의 이론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는데, 망한 것은 이론상 허점인가? 운용의 잘못인가?
- 일본 「센」 교수의 「1996년 한반도 통일」 예언이 빗나간 것에 대한 귀축의 평가는?
- 종속이론의 한국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는?
-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발생되었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북한주민의 사상무장 정도 및 유치원생에 대한 사상교육 정도는?
- 현재 남북한의 기초과학 연구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핵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독도 영유권 및 위안부 등 일본과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침묵하는데 대한 평가는?
- 북한의 정통성 우위를 주장하는 북한 및 대북 동조인사들에 대한 통일원의 공식 입장은?

- 김순권박사의 방북을 제한하는 이유는?
- 북한의 위정자나 지배계층 중에서 체제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 북한내의 군부의 영향력과 내부갈등은 어느 수준인가?
- 북한에 반체제 인사나 반체제 압력단체가 있는가?
- 정부가 공무원 시험에서 국민윤리 과목을 제외시킨 이유는?
- 통일 이후의 역량비축을 위하여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떤가?
-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자본주의 체제의 향후 전망은?
- 북한여성의 교육수준 및 대학진학율은 어떠한가? 그리고 여성들이 취업하는 분야와 취득하는 자격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김정일의 공식권력승계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현재 북한정세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는 어떠한가?
- 북한정권의 안정성이라는 실질적 측면에서의 권력승계 지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만약 북한이 체제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중국식 모델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 귀순인사의 대체적 인상은?
- 탈북에 대비한 북한의 경비체제는?
- 북한의 문화재 보존상태는?
- 북한 청소년의 의식상태는?
- 노동당 가입조건과 김일성대학 입학에서의 당성(黨性) 문제는?
- 북한주민의 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한 시각은?
- 배급제인 북한에서 돈은 어디에 사용하나?

- 탈북자 교육실태 및 우리사회 적응과정과 적응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향후 체제적응 교육계획은?
- 정부가 탈북자를 영농후계자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 북한체제의 긍정적 측면 및 북한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 판문점 정전체제의 현 상황 및 앞으로의 대안은?
- 북한체제의 붕괴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교육성과 때문이 아닌가?
- 북한의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한 민족사적 시각은?
- 북한의 산업분야별 자금자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북한의 구체적인 술 생산량과 주민들의 소비량은?
- 북한의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떠한가?
- 북위 38도선 이남의 휴전선 일대에 거주했던 북한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있는가?
- 북한주민들의 결혼관은 어떠하며, 출산 및 산아제한의 실태는 어떠한가?
- 북한의 공휴일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 북한의 학도군사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 북한의 교육제도, 의무교육, 진학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수업시간 및 방과 후 활동은 어떠한가?
-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그리고 군부 쿠데타 가능성 및 전쟁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북한의 전쟁도발 핵심세력 및 조직은 무엇이며, 만약 김정일이 제거된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가?

- 황장엽씨 귀순 이후 아직도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사 때문인가? 아니면 국제적 신의 때문인가?
- 탈북자와 귀순자에 대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는가?
- 북한의 농업이 폐허화된 이유는?
- 남한·북한이라는 용어 대신 대한민국·북부지방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어떠한가?
-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할 경우, 우열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귀순자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결국 북에 남아 있는 귀순자의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귀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20배 이상이고 군사비 규모도 훨씬 많은데, 군사력이 뒤지고 자주국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 우리의 대북 군사력이 85% 정도라는데 15%의 억지력을 위한 주한미군 이용이 경제적 이익은 있으며, 100% 목표 달성시 미군은 떠날 것인가?
-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GNP 비교는 가능한가?
- 북한의 자살공격대 실상은?
- 북한의 단군릉을 보는 견해는?
- 북한에서의 영어교육은 주당 몇시간이며, 영어교사의 양성 방법은?
- 김정일이 말하는 모기장, 방충망은 무엇인가?
- 북한 중앙방송의 내용을 일본을 통해서 보도하는 이유는?
- 북한에 전하려는 우리의 문화정책은?

- 북한 문화자료의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 북한에 전통사상과 문화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 북한 군부정치의 실상은?
- 북한의 외국어교육 실태 및 외국영화 상영 실태는?
- 북한의 문화는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족성 강조와 사회주의적 문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북한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 및 소유권 인정 범위는?
- 북한체제에 대한 전망에서 김정일은 Keyword라고 할 수 있는 바, 김정일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어느 정도이며, 우리는 김정일을 너무 부정적 측면에서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 노동1호 미사일의 성능과 북한의 군사기술 정도는?
- 북한의 부실공사 실태 및 최고층 건물은?
- 태백산맥의 내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 과연 북한과 대화에 의한 평화통일이 가능한가?
- 통일에 대한 조기교육은 어떠한가?
- 탈북자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 북한사회의 배급제도는 없어졌는가?
- 북한의 청소년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북한 노동신문의 발행부수 및 보급 방법은?

(붙임 2)

전문·일반과정 설문응답 현황

* 총 2,288명중 2,183명 응답('97.12.31.현재)

설문 1) 이번 교육을 통해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단위 : 인원 ; 명, 비율 ; %)

구 분	응답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통일교육 전문위원	207	136	65.7	70	33.8	1	0.5
사회교육 담당자	60	36	60.0	24	40.0	-	-
민방위 소양강사	141	97	68.8	42	29.8	2	1.4
대학교수	211	92	43.6	117	55.5	2	0.9
중등교사	651	348	53.5	279	42.9	24	3.6
관리직공무원	275	202	73.5	71	25.8	2	0.7
수습사무관	218	81	37.2	110	50.4	27	12.4
교육행정직 공무원	171	107	62.6	59	34.5	5	2.9
보안경찰직 공무원	41	11	26.8	26	63.4	4	9.8
공안공무원	45	33	73.3	11	24.5	1	2.2
정훈장교	40	24	60.0	16	40.0	-	-
통일공무원	26	19	73.1	7	26.9	-	-
사회교육 기관장	60	45	75.0	15	25.0	-	-
대학생 (북한·윤리 학 전공)	37	22	59.5	15	40.5	-	-
계	2,183	1,253	57.4	862	39.5	68	3.1

설문 2) 교육과정으로 선정된 교과목 구성체계는?

(단위 : 인원 ; 명, 비율 ; %)

구 분	응답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통일교육 전문위원	207	193	93.2	11	5.3	3	1.5
사회교육 담당자	60	38	63.3	18	30.0	4	6.7
민방위 소양강사	141	101	71.6	35	24.8	5	3.6
대학교수	211	127	60.2	54	25.6	30	14.2
중등교사	651	446	68.5	122	18.7	83	12.8
관리직공무원	275	241	87.7	13	4.7	21	7.6
수습사무관	218	118	54.2	50	22.9	50	22.9
교육행정직 공무원	171	145	84.8	11	6.4	15	8.8
보안경찰직 공무원	41	29	70.7	4	9.8	8	19.5
공안공무원	45	39	86.7	2	4.4	4	8.9
정훈장교	40	32	80.0	4	10.0	4	10.0
통일공무원	26	19	73.1	5	19.2	2	7.7
사회교육 기관장	60	49	81.7	7	11.7	4	6.6
대학생 (북한·윤리 학 전공)	37	27	73.0	4	10.8	6	16.2
계	2,183	1,604	73.5	340	15.6	239	10.9

설문 3) 부적절하다면 어떤 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면 좋겠습니까?

구 분	신 설	폐 지
통일교육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견학(판문점) (12) · 시청각(최근 북한실상 영상자료) (7) · 북한실상 (경제, 사회범죄 등) (2) · 공산주의 이론 비판 (1) · 남북이질화 현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주민과의 대화 (3) · 분단국 통일사례와 우리의 통일 (2)
사회교육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계획 (7) · 최근 북한실상 (4)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2) 	(없 음)
민 방 위 소양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 각 분야의 이해 (경제, 사회, 문화 등) (8) · 국제정세 이해 (4) · 민방위대원 교육기법 (3) · 정신교육(시민의식 고양) (3) · 통일대비 시민의식 부양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주민과의 대화 (7) · 북한의 통일전선진술 (2)
대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북한실상 (10) · 주체사상의 허실 (5) · 남북한 분야별 비교 (정치·군사·사회 등) (2) · 남북한 군사·군비문제 (2) · 북한의 통일정책 (2) · 통일이후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2)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2) · 통일대비교육 (1) ·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과목 (1) · 북한제작 영화·가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주민과의 대화 (7) · 남북 현안문제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3) · 시청각(평양의 4계절) (2) · 주체사상의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1)
중등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사회실상 (9) · 통일후의 교육·사회정책 (7) · 통일(민족통합)방안 (2) · 북한의 법 (2) · 북한의 통일정책 (2) · 북한의 군사력 (2) · 북한의 정치 (2)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1) · 통일 전후의 장단점 (1) · 통일의 필요성 (1) · 통일의 장애요인 (1) · 통일후의 국민자세 (1) · 통일대비계획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6) · 북한의 교육실태 (4) · 남북 현안문제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2) · 탈북주민과의 대화 (2) · 주체사상의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1) · 통일정책 (1) · 시청각 (1) · 분임토의 (1)

구 분	신 설	페이지
중등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환경 (1) · 한반도 주변정세 (1) · 북한의 문화(예술·언어)이해 (1) · 남북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점 (1) · 북한제작 영화 (1) · 해외연수 (1) · 초·중·고 학생 통일교육방안(1) · 북한 교과서 분석 (1) 	
관리직원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선례 분석 (1) · 북한 경제, 사회, 문화 이해 (1) · 통일환경 관련 영상자료 상영 (1) · 공산주의 기초이론 (1) · 통일후의 정책과제와 해결방안(1) 	· 탈북주민과의 대화 (1)
수습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의 생활실상 (3) · 북한의 각종 제도 (2) (사회·문화·화폐·병역) · 남북한 통합방안 (1) · 통일비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특성 (8)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4)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4) 추진현황 · 남북현안문제와 대북정책 (3) 추진방향 ·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3) 우리의 통일 · 북한경제 실태 (2) · 통합대비업무의 과제 (1) · 시청각 (1)
교육행정직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실상(사회·문화·교육 (4) 주민생활) · 통일안보교육 방법론 (1) · 자유민주주의 사상 (1) · 통일안보의식 (1) 	(없 음)
보안경찰직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내 좌익폭력 세력의 실체 (1) · 좌경사상 (1) 	· 전방시찰 (1)
공안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이론 비판 (1) 	(없 음)
정훈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후 과제 및 전망 (2) · 북한주민의 실생활 (2) · 전방견학 (1) · (분야별) 통일대비계획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대남전략 (2) · 북한경제 (1) · 시청각 (1)
통일원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계획 (2) · 중국·일본의 정책과 한반도 (2) 통일 ·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1) · 통일비용확보 방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2) · 통일환경 (1) · 독일통일의 교훈과 문제점 (1) · 북한체제의 특성 (1)
사회교육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분야별 북한실상 (1) 영상자료) 	(없 음)

구 분	신 설	페이지
대 학 생 (북한·윤리 학 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과정 및 과정상의 제문제 (1) · 통일 후의 과제와 독일의 통일정책 (1) · 북한의 군사전략 (1) 	(없 음)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실상 이해 (39) (경제·사회·문화, 주민생활 등) · 전방견학(판문점) (13) · (분야별)통일대비계획 (11) · 시청각(분야별 북한실상, 통일환경 관련 영상자료) (9) · 통일 후의 교육·사회정책 (7) · 통일대비 시민의식 부양책 (정신교육) (6)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5) · 북한주민의 실생활 (5) · 국제정세 이해 (5) · 주체사상의 허실 (5) · 북한의 통일정책 (4) · 남북 통합방안 (3) · 공산주의 이론 비판 (3) · 민방위대원 교육기법 (3) · 통일후의 과제와 전망 (2) · 통일비용 확보방안 (2) · 남북한 군사·군비문제 (2) · 남북한 분야별 비교 (정치, 군사, 사회 등) (2) · 북한의 각종제도(사회, 문화, 화폐, 병역 등) (2) · 중국·일본의 정책과 한반도 통일 (2) · 북한제작 영화·가극 (2) · 북한의 법 (2) · 통일의 당위성(필요성) (2) · 통일이후 민족동질성 회복방안(2) · 북한의 군사력 (2) · 남북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점 (1) · 남북 이질화 현상 (1) · 통일의 장애요인 (1) · 통일전후의 장단점 (1) · 북한의 정치 (1) · 북한의 군사전략 (1) · 통일의 과정 및 과정상의 제문제 (1) · 북한의 환경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주민과의 대화 (20) · 북한체제의 특성 (9) · 남북현안 문제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8) · 시 청 각 (7)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6) · 분단국 통일사례와 우리의 통일 (5)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4) ·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현황 (4) · 북한의 교육실태 (4) · 북한경제 실태 (3) ·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2) · 주체사상의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2) · 북한의 대남전략 (2) · 통합대비업무의 과제 (1) · 독일통일의 교훈과 문제점 (1) · 통일환경 (1) · 통일정책 (1) · 분임토의 (1) · 전방시찰 (1)

구 분	신 설	페이지
계	· 통일후의 정책과제와 해결방안(1)	
	· 통일선례 분석 (1)	
	· 통일후의 과제와 독일의 통일 (1)	
	정책	
	· 북한의 문화·예술정책 (1)	
	· 자유민주주의 사상 (1)	
	· 통일안보의식 (1)	
	· 북한 교과서 분석 (1)	
	· 통일안보교육 방법론 (1)	
	· 초·중·고 학생 통일교육 (1)	
	방안	
· 해외연수 (1)		
· 통일대비교육 (1)		

설문 4) 전반적으로 아래 항목에 대하여 10점을 만점으로 할 때 <10, 8, 6, 4, 2>점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구 분	강의내용의 적 절 성	강의기법의 적 절 성	교 수 의 강의능력
통일교육 전문위원	8.3	8.1	8.3
사회교육 담당자	7.8	7.3	8.0
민 방 위 소양강사	8.0	8.0	8.0
대학교수	7.5	7.5	7.9
중등교사	7.9	7.2	7.7
관 리 직 공 무 원	8.3	7.6	8.1
수습사무관	7.5	5.9	6.9
교육행정직 공 무 원	8.0	7.3	7.9
보안경찰직 공무원	7.7	7.3	8.0
공안공무원	9.0	9.0	9.0
정훈장교	8.4	7.7	8.2
통일공무원	7.5	7.2	7.4
사회교육 기관장	8.4	7.7	8.2
대 학 생 (북한·윤리 학 전공)	7.9	7.6	8.2
계(평균)	8.0	7.5	8.0

설문 5) 이번 교육을 통해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과목(2개, 전방시찰 제외)은?

구 분	과 목	인 원(명)
통일교육전문위원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우리의 통일	99
	주변정세와 통일전망	91
사회교육담당자	북한경제 현황	38
	통일정책<남북현안문제>	34
민방위소양강사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우리의 통일	68
	북한의 체제와 군사전략	45
대 학 교 수	통일정책<남북현안문제>	108
	종합토의	81
중 등 교 사	탈북주민과의 대화	156
	종합토의	131
관리직공무원	통일정책<남북현안문제>	110
	통일환경	75
수습사무관	탈북주민과의 대화	134
	통일과 공직자의 자세	127
교육행정직공무원	통일정책<남북현안문제>	75
	북한경제 현황	53
보안경찰직공무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23
	북한경제 현황	8
공안공무원	통일환경	24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8
정 훈 장 교	통일정책<남북현안문제>	18
	북한의 대남전략	14
통일원공무원	나진·선봉지역 개발현황과 전망	8
	독일통일의 교훈과 문제점	7
사회교육기관장	남북현안문제	32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우리의 통일	25
대 학 생 (북한·윤리학 전공)	통일환경	21
	통일정책<남북현안문제>	17

구 분	과 목	인 원(명)
계	통일정책<남북현안문제>	583
	탈북주민과의 대화	482
	종합토의	355
	통일환경	303
	북한경제 현황	299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우리의 통일	245
	북한정세	177
	남북현안문제	147
	특 강	130
	남북교류협력	112
	주변정세와 우리의 통일	9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68
	남북현안 문제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65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63
	북한의 체제와 군사전략	51
	북한의 교육실태	36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33
	분임토의	33
	시 청 각	27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추진현황	21
	주체사상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14
	북한의 대남전략	14
	북한체제의 특성	13
	통일대비교육 현황	10
	통합대비교육의 과제	9
	나진·선봉지역 개발현황과 전망	8
	독일통일의 교훈과 문제점	7

(붙임 3)

특별과정 설문응답 현황

*총 563명중 524명 응답 ('97.12.31 현재)

설문1) 이번 교육을 통해서 통일대비업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단위 : 인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통일대비 행정요원	260	229	88.1	31	11.9	-	-
통일대비 교육요원	264	162	61.4	92	34.8	10	3.8
계	524	391	74.6	123	23.5	10	1.9

설문2) 통일대비요원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구성내용과 체계는?

(단위 : 인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잘 짜여져 있다		잘 모르겠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통일대비 행정요원	260	136	52.3	13	5.0	111	42.7
통일대비 교육요원	264	69	26.2	8	3.0	187	70.8
계	524	205	39.1	21	4.0	298	56.9

설문3)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설요망과목, 불필요한 과목 등)

가. 신설요망 과목 등

- 해외연수(중국, 독일, 베트남, 예멘) (16)
- 체육·레크레이션·등반 (12)
- 학생지도에 필요한 통일교육방안(교과학습 프로그램) (8)
- 북한실태(주민들의 관습, 실생활 등) (8)
- 통일시 요원 임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실무적 과목 (7)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비교 분석 (3)
- 북한주민의 심리 연구분석 (3)
- 통일의 당위성 이론 (2)
- 남북군사력 비교 (2)
- 남북교류협력 실무경험자와의 대화 (2)
- 선무활동기법 (2)
-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전략 (2)
- 북한의 지방행정 (2)
- 러시아의 개혁·개방 (1)
- 베트남·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사례 (1)

○ 북한의 체육	(1)
○ 북한의 암시장 실태	(1)
○ 교양과목(문학, 공직자 윤리; 건강 등)	(2)
○ 예멘의 사회통합과 현 상황	(1)
○ 세계 각국의 통일역사	(1)
○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1)
○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1)
○ 통일 후의 교육과정	(1)
○ 통일 후의 학생·주민 교육계획	(1)
○ 통일후 민족동질성 회복방안	(1)
○ 통일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1)
○ 통일비용 조달방법	(1)
○ 교육제도 및 교육통합	(1)
○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1)
○ 해방 전후사, 분단사 재인식	(1)
○ 남북한 의료기술과 (한)의학	(1)
○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일후 관계	(1)
○ 남북한 행정체제 및 행정기관 비교	(1)

- 남북한 스포츠(전통 무예) 비교와 통합 (1)
- 남북한 청소년 실태분석과 북한의 청소년 문제 (1)
- 남북한 문화·예술 통합방안 (1)
- 변화된 북한실상의 구체적 내용 (1)
- 주요산업시찰 (1)
-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조사 방안 (1)
- 핵문제 과목 (1)
- 북한의 종교문제 (1)
- 남북환경문제의 비교 및 통합방안 (1)
- 북한정권의 실증적 역사 (1)
- 흡수통일 또는 점진적 통일대비의 구체적 실천방안 (1)
- 김일성은 누구인가 (1)
- 북한소설 읽기 (1)
- 변질된 북한용어 습득과정 (1)
- 북한 여성들의 특성 (1)
-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1)
- 북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1)
- 통일원의 중요정책분야 소개(국가의 통일정책 개요) (1)

- 외교 관련 전문과목 (1)
- 이념·정신 강화 관련 과목 (1)
- 정부정책(실무) 담당자와의 대화 (1)
- 문화유적지 탐방 (1)
- 통일전망대 등 휴전선 시찰 (1)
- 탈북주민과의 대화 시간 확대 (29)
- 북한 영화, 비디오 등 시청각교육 확대 (21)
- 종합토의시간 확대 (5)
- 전방견학 등 현장학습 확대 (4)
- 북한의 지리, 역사, 문화 등 과목 확대 (3)
- 북한 체험·경험담 증설 (3)
- 북한현실 관련과목 증설 (2)
- 남북통합방안 시간 확대 (1)
- 교육에 관한 과목 증설 (1)
- 자유민주주의 이론, 시장경제 이론 증설 (1)
- 경제부문 더욱 강조 (1)
-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 확충 (1)
- 여성탈북자 초청 (1)

○ 한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과목(1)

나. 불필요한 과목 등

○ 북한의 법제도와 법생활 (8)

○ 개인과 사회 (7)

○ 전통문화의 이해 (4)

○ 민주사회와 민주적 절차 (4)

○ 주체사상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4)

○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2)

○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교육 (2)

○ 분임토의 (2)

○ 시장경제원리와 경제생활 (1)

○ 북한의 영화 (1)

○ 방북 경험자와의 대화 (1)

○ 대북투자 경험담 (1)

○ 불법행위 청산방안 (3)

○ 남북통일방안 비교 분석 (1)

○ 최근 북한동향과 대남전략 분석 (1)

○ 북한의 행정체제 (1)

- 북한의 전통문화 변질실태와 민족문화의 올바른 이해 (1)
- 통일대비요원에게 바란다(수료식 원장 말씀으로 대체) (1)
- 통일후 독일 정치교육의 현황과 교훈 (1)
- 전방견학 (1)
- 통일대비요원의 임무와 역할 (1)
- 시 청 각 (1)
- 북한의 정치분야 과목 축소 (3)
- 전방견학 시간 축소 (3)

설문 4) 분임토의에 관하여

가. 분임원의 분임활동에 대한 참여 태도는?

(단위 : 인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매우 적극적		적 극 적		소 극 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통일대비 행정요원	260	85	32.7	141	54.2	34	13.1
통일대비 교육요원	264	79	29.9	157	59.5	28	10.6
계	524	164	31.3	298	56.9	62	11.8

나. 분임편성에서부터 연구과제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체제는?

(단위 : 인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매우 효율적		효 율 적		비 효 율 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통일대비 행정요원	260	45	17.3	185	71.2	30	11.5
통일대비 교육요원	264	37	14.0	183	69.3	44	16.7
계	524	82	15.7	368	70.2	74	14.1

다. 지도교수의 활동은?

(단위 : 인원; 명, 비율; %)

구 분	응답자	매우 적절		적 절		무 관 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통일대비 행정요원	260	70	26.9	169	65.0	21	8.1
통일대비 교육요원	264	56	21.2	159	60.2	49	18.6
계	524	126	24.0	328	62.6	70	13.4

라. 과제 연구시 애로사항은?

- 연구자료의 제한·부족 (184)
- 시간의 부족 (86)
- PC 성능 낙후 및 수량 부족 (21)
- 분임원간 견해차이 및 의견수렴, 이견조정 곤란 (8)
- 자료실 개방(열람)시간 제한 (8)
- 북한실상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14)
- 분임원의 방관적·소극적 참여태도와 관심 부족 (5)
- 분임 구성인원 과다 (2)
- 학습평가와 분임연구발표 시차가 좁아 부담 (2)
- 연구주제의 선정 (1)
- 지도교수의 역할 및 지도의사 부족 (1)
- 분임보고서 제출시기 촉박 (1)
- 발표논문의 작성 분량 과다 (1)
- 자료실에 소장 도서목록이 없음 (1)
- 북한 관련자료의 비현행 (2)
- 종사분야가 달라 전체적 관심사가 합일되기 어려움. (1)